

## 우리를 억압하는 성역할

생명과학과 202127434 윤나현

성차별, 성평등 교육 영상을 보고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이 겪는 차별도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성차별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어린시절부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입 받으며 자라왔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구조화된 신념이다.<sup>1</sup> 아동기부터 우리는 등장인물이 '여성적인' 혹은 '남성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TV프로그램, 컴퓨터 게임에 노출되어왔다. 또한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남자)치고는 잘 하네' 같은 관용적 표현도 있다. 이와 같은 관용적 표현은 우리가 각 성별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착하도록 했고 미디어의 발달로 성역할 고정관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특정한 매너 또는 경제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드라마와 웹툰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데이트 시 남성에게 고기를 굽거나, 옷을 벗어주거나, 구두를 신고 온 여성을 업어주는 등의 매너를 요구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결혼할 때 남성에게 집을 요구하거나 '취직(집에 취직하다)'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지려는 남성을 상남자라고 한다. TV프로그램 중 남성을 지켜주고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개그우먼을 '상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역할을 고착화한 사회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은 남성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라고 여기는 사회의 기초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사회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신체적 아름다움과 연약한 태도, 가정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자주 강요한다. 먼저, 사회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외모를 가꿔 아름다워지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성형외과, 화장품, 다이어트 등 대다수 미용 광고의 주 타겟층은 여성이다. 외모관리를 중시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능력보다는 외적인 외모관리에 치중하여 내면의 정신적, 육체적인 자기관리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sup>2</sup>

또한, 사회는 여성에게 연약한 태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애교, 즉 귀엽게 보이고자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은 여성은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

<sup>1</sup> 심미혜. "한국인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2013): 365-385.

<sup>2</sup> 김경희, and 김은하.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2019): 337-358.

마지막으로 사회는 과거부터 여성에게 희생을 강구했는데, 이는 고정희 시인의 <여성사 연구 5 - 우리동네 구자명씨>라는 시에 잘 드러난다. 시 속 구자명씨는 사회에서 희생적인 여성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에게 가족을 위해 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때,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인식은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사노동 및 가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을 이상화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경력단절 및 육아와 가사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처럼, 여성이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모습을 불만족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한정 지을 수 있다.

두 성별에 대한 차별의 원인은 크게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인식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사회 구조적으로, 더딘 인식 개선은 기존 성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대물림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히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는 생활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교 문화에서 중시되는 제사와 가족 행사는 여성 없이는 진행될 수 없었다. 남성이 제사를 주관했음지라도, 현실적으로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다. 현재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을 이어 가족 행사와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여성 또한 활발히 사회진출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행사와 제사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도움없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 달라진 상황, 즉 남녀 모두 동등한 경제생활을 함에도 한쪽 성별에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현실을 더디게 수용한 결과, 오늘날의 여성들 또한 차별적인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은 각각의 성에 특정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성역할을 고정시켰다. 웹툰이나 컴퓨터 게임, 유튜브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가슴이나 골반은 부각되고 허리는 잘록하게 그려진다. 또한, 남성 등장인물의 강함이나 근육을 강조하는 장면은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주입한다. 이렇듯 사회에서 부여한 성역할은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인식면에서는 개인이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단일화와 평범함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영상을 본 뒤, 나는 성차별이 온전히 여성 또는 남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자신의 아픔을 부풀리고 상대의 아픔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남여에 대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러한 차별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혐오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가 미래에는 화합과 평화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우선 나부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이에 따라 일상의 성차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